

한라시론



양 응 진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장

불안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도민들의 감염사례보다 방문자들이 의지대로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는 문재인 정부와 특히 집권(질병관리본부)의 의지와 태도를 보며 불안감을 씻어내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

정도를 걸어갈 사람을 뽑는 선거

다. 모름지기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범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정작 국제무대에서는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 해 온 것이 사실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일부 반사회적 집단의 몰상식한 행동을 바로잡고 이대로 사태가 진정만 되어 준다면 글로벌리더 국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불과 5년여 전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불리던 시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 실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아직 코로나 사태는 진행 중이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총선은 치러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면 선거운동

이 어렵고 준 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으로 유권자가 바라보는 정치판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유래가 없는 '위성정당'이라는 폼수를 부리는 야당과 그 폼수에 같은 폼수로 대응하는 여당의 행태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폼수에는 정도(正導, 正道)로 답해야 했다. 불안하다고 해서 폼수에 폼수로 답한다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밖에 안 보인다. 좀 더 성실하게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유동층의 마음을 붙잡아야 했다. 골수 추종자 30%의 목표로 '미통당'이 제 1당이 되더라도 여당이 진짜 쫓벌 정당이라고 자신한다면 '정도'를 보여 줘야 했다. 김대중, 노무현, 노회찬 등 우리가 기억하는 정치의 거목들이 그랬고 무엇보다 지금의 정부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모습이 바로 정도를 선택하여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정치인보다는 바보라고 불려도 정도

를 걸어갈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결국 그를 선택한다. 우리 지역 정치, 선거판도 마찬가지다. 때만 되면 나타나서 눈치 보는 후보들이 난무하고 말 바꾸기와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어지럽힌다.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것은 권력일 뿐이다. 정책을 보라고 하지만 선거판에 내놓는 정책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한 것이 몇 %나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필자는 후보들의 걸어온 길에서 진정성을 찾는다. 그들의 약력이 아니고 약력 뒤에 숨어있는 진정성을 보아야 한다. 가령 선거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관심밖에 묻혀버린 '4·3', 또는 그 밖의 제주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평소 어떤 길을 걸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으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보다 해 온 것들의 가치를 조명 해 보면 '정도'를 걸어갈 사람이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혼탁선거전 철퇴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2일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쇄물 언론매체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됩니다. 이번 총선에 제주지역 3개 선거구 후보는 총 15명 등록으로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도내 3개 선거구 경쟁률 3대1보다 높습니다. 총선이 높은 경쟁률에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으로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혼탁·과열 선거전으로 흐를 가능성은 매우 컸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마다 사활을

건 표심잡기에 나서면서 후보 지지 호소에 불법·탈법행위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 흑색·비방선거전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번 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이미 상대후보 흠집내기성능이 난무하면서 과열·혼탁 선거 조짐들을 보인 상황입니다. 선거는 경쟁이고, 당선만이 최상일 수도 있지만 공정한 경쟁과 정책·공약을 통한 표심잡기는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의 핵심입니다. 국민의 표심 역시 현연 학연 지연이 아닌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동북아시아 제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후보·정당 선택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표심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유권자 중심이 선거가 되기 위해선 온갖 불·탈법 선거와 과열·혼탁선거를 철저히 감시하고 심판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가장 깨끗한 선거로 치뤄지도록 선거운동기간 유권자의 힘을 보여 줍시다.

온라인 수업, 피해 학생 없도록 준비해야

코로나19 사태가 학교의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잇따른 개학 연기에 이어 온라인 수업이 본격 결정되면서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9일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까지 4학년이 끝까지 학년별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것입니다. 우선 오는 9일 일요일에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합니다. 그 다음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은 16일 온라인으로 개학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20일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등원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이 연장됩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

험능력시험도 2주 연기돼 12월 3일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온라인 개학에 따른 문제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온라인 개학 발표로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겁니다. 당장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학교보다도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가정 여건이 충분한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나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은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자습용 책이 부족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은 66.7%에 그쳤습니다. 국민 전체 평균(83.2%)보다 낮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등원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이 연장됩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

편집국 25시

영화보다 나은 결말



이 상 민
행정사회부 차장
hasm@ihalla.com

영화 컨테이션은 감염병 공포와 급변하는 개인의 삶, 난무하는 가짜 뉴스까지 감염병 사태 속에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잘 묘사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영화를 수작이라고 보기에 마땅치 않은 구석이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질병본부의 치버 박사는 도시를 봉쇄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아내에게 전화로 "빨리 탈출하라"고 다그치는데, 이 모습을 건물 청소부에게 들리고 만다. 그리고 영화는 둘 사이 갈등을 치버 박사가 자신의 뒤통으로 받은 백신을 청소부 아들에게 주는 것으로 매듭짓는다. 치버 박사가 남은 윤리적 문제는 둘의 화해로 훈훈하게 포장됐다. 그래서일까, 영화가 끝난 뒤 밀려드는 허탈함과 분노는 오로지 내 뒤통이.

만약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시민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결말은 바라던 결말이 아니다. 최근 제주에서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실명, 동선이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는 보건당국이 확진자의 동선을 발표하기 전이었다. 제주도가 이 공무원을 고발한다고 하자 온라인에선 찬반 논란이 일었다. 처벌 반대 측은 보건당국 발표 시점보다 결과적으로 빨리 동선이 공개됐으니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었다. 당황스럽다. 만약 그 공무원이 처벌을 무릅쓰고 일찍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신념 아래 그런 일을 벌인 것이라면 인터넷 게시판이라든가 보다 더 공개된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자신을 아는 이에 게만 공문서를 유출했다. 이후 이 문서는 SNS를 타고 확산됐다. 공무원의 행동은 직업적 특권으로 얻은 정보를 끼리끼리 나눠 갖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상을 줘야 하는가. 우리마저 영화처럼 문제를 덮어버리면, 우리 모두 영화 속 치버 박사와 청소부처럼 공범이 된다.

뉴스-in

후보자 토론회, 때 아닌 뉘우침 공방

오영훈·부상일 후보 격돌
○...1일 진행된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공동주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때 아닌 '뉘우침' 공방이 벌어져 눈길.
부상일 후보가 오영훈 후보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실을 질문하자 오 후보는 "형사처벌 받았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부 후보가 말해달라"고 답변.
이에 부 후보가 "죄를 뉘우쳤다면 어떻게 모를 수 있나"고 반문하자 오 후보는 과거 부 후보의 배우자 선거법 위반해 공천권을 반납한 일을 꺼내 대응. 송은범기자
생활방역체계 안정적 전환
○...제주시는 코로나19와 관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이 오는 5일 종료됨에 따라 생활방역체계의 안정적인 전환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
시는 다중이용시설과 읍면동에

방역약품 및 소독기 등을 배부하는 등 생활 방역 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계획.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 집중과 새롭게 발생하는 정보를 신속 제공하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온라인 안심독서 캠페인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가 온라인 안심독서 캠페인을 전개.
이는 공공도서관의 임시휴관이 장기화되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3월 11일부터 주 2회 예약대출서비스에 따른 것으로, 도서관 이용 시 5가지 수칙을 도서관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와 이용자에게는 SMS를 발송.
도서관 관계자는 "책장 넘길 때 침을 바르지 않고, 화장실 갈 때 책을 갖고 가지 않기 등의 실천을 당부한다"며 "대출·반납 도서관에 대한 소독과 자료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부 고
김상훈(前 제주도청) 아버지 광산 김공 광수(향년 83세)께서 서기 2020년 4월 1일 02시 5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4월 2일(목요일)
▶발인일: 2020년 4월 3일(금요일)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2층) 3분향실
▶장 지: 마을 공원묘지
아 들 김상훈 며느리 김소영
상국 고숙자
상학
상범 박미연
딸 김윤정
※ 연락처: 김상훈 010-6798-871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여순(향년 8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를 위로하고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경황이 없어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4월 2일
아 들 문창완 며느리 양경혜
인홍 이현의
창용 강명숙
인성 박제형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숙자(향년 8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4월 2일
아 들 문경복 며느리 고영복
경호 배수진
경국 김민경
달 문선영 사 위 강수영
미영 필슈박
순영
진영 한 훈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 고 인 김승환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1.
판사 서근찬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20. 03. 30. 주주총회의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날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0. 6. 2.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정산에서 제외합니다.
2020년 4월 02일
주식회사 고르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72번길 18, 비동(서귀동)
정산인 이 동 환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피 고 인 김경보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협박)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1.
판사 서근찬

제주도정 소식
도민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지원대상자 공개 모집
접수 기간: 2020. 3. 25.(수) ~ 4. 10.(금)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2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에 따른 협조 알림
○ 올해 4·3추념일에는 각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과 유족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4·3평화공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10시부터 1분간 울리는 묵념 사이렌이 울리면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고 추모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와 평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추모관'에 방문해 4·3영령들을 추모해주시기 바랍니다.